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10. 14(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 -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3개 주제관, 23개 시군 홍보관, 100여기업 참여 - 경북형 산림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분야 정책 홍보	산림산업관광과	
② **경북도, 2025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본격 시동** - 14일 경북화백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회의 -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경연 참여	외교통상과	
③ **경북도, 제6회 관상어박람회에서 '은상' 수상** - 2021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관상어품평회 참가 - 50㎝급 '대정삼색비단잉어' 출품 - 토속관상어 15종, 생태수조 및 수중사진 특별전시관 운영	수산자원연구원	
④ **경북도, 아름다운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특별한 동행** - 경북 江·山·海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해양레저관광과	
⑤ **경북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 경북 7개 기관 시범사용기관 선정 6억7700만원 혁신제품 확보	회계과	
⑥ **칠곡할매들, 역사 속 한글 발자취를 찾아나서** - 제575돌 한글날 기념,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신바람 나들이 행사 가져	관광마케팅과	
⑦ **경북도의회,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찬성 의결** - 14일 본회의에서 찬성36명, 반대22명, 기권1명으로 찬성의결 -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력 확보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길 열어 - 이철우 지사, 담화문 통해 도의회에 감사...정부에 통합신공항 추진 촉구	자치행정과	
⑧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 비전 :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발표 - 산업구조 대개조, 혁신인재 1만명, 환태평양글로벌 허브 조성	정책기획관실	
⑨ **경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펼친다** -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 경북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맑은물정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4(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관광과		
		작성자	과 장	이 재 훈	
			팀 장	이덕규	주무관 박소영
		연락처	054-880-3623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

-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 3개 주제관, 23개 시군 홍보관, 100여기업 참여 -
- 경북형 산림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분야 정책 홍보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1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경북형 산림뉴딜 산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추진해 온 경북도 산림정책 전반을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고 향후 산림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정책 주제관, 시군 홍보관, 임산업 기업관, 숲체험장 등으로 구성하고, 산림조합을 비롯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등 관내 유관기관과 100여 기업이 참여한다.

또 산림정책 심포지엄, 기업PT쇼, 우수임산물 라이브커머스,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박람회장 내부에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북도의 산림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행사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

행사장 무대는 개막식과 산의 날 기념식, 산림정책 심포지엄 등 다용도로 활용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산업발전은 탄소중립과 분리할 수 없고 지역의 철강·자동차 산업과 대구의 제조업도 경북 면적의 70%가 넘는 산림을 잘 활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라면서, “이번 박람회는 미래 경북과 대한민국 산림산업 구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

2021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안)

◇ 경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뉴딜 · 탄소중립 정책 모색을 위한 대국민 산림정보 소통의 장 마련

◇ 비대면 시대 대응 산림치유, 레저, 휴양 등 산림분야 新 시장 개척 등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숲이미래다! 숲으로가자!)

○ 기　　간 : 2021. 10. 14.(목) ~ 16.(토) / 3일간 ※ 개막식 14일(목) 15시

○ 장　　소 : 대구 엑스코 서관 1, 2홀(대구 북구)

○ 주최/주관 : 경상북도

○ 후　　원 : 도내 23개 시군, 산림조합중앙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도내 11개 산림분야 유관기관

Ⅱ 행사내용

○ 전 시 회 : 산림관광, 산림레포츠, 탄소중립, 목재산업, 임산물 등

○ 기 업 관 : 100여개 판매관

○ 체험행사 : 산림치유 체험, 산림레포츠체험, 유아숲체험 등

○ 연계행사 : 산의 날 행사, 산림포럼(탄소중립, 산림정책 등)

○ 부대행사 : 임업경영컨설팅, 기업PT쇼, 라이브커머스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4(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성자	과 장	이 응 원	
			사무관	김영경	담당자 김광재
		연락처	054-880-2717		

경북도, 2025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본격 시동

- 14일 경북화백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회의 -

-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경연 참여 -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와 경주시(주낙영 시장)는 1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25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북도, 경주시, 경북관광공사, 경주화백켄벤션뷰로,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했다.

회의에서 지난 7월 6일 2025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선언이후 각 기관별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5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2025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APEC 경주유치를 위한 web사이트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협의 및 정보공유를 위해 상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구현모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

시’ 경주가 2025APEC정상회의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APEC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25APEC정상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회의 개최

개 요

○ 일 시 : '21. 10. 14(목) 11:00~12: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 205호

○ 참석인원 : 15여명

- 경 북 도 : 국제관계대사, 외교통상과
- 경 주 시 : 관광컨벤션과
- 관계기관 : HICO, 경북관광공사, 대구경북연구원

○ 주요 협의(안)

-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준비현황 점검
- HICO 증개축 현황 및 홍보동영상 제작관련 사항
- APEC 유치 web사이트 개설 및 민간유치추진위원회 구성(안) 등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02	2′	▸ 참석자 소개, 회의순서 설명	사회자
11:02 ~ 11:05	3′	▸ 인사 말씀	국제관계대사
11:05 ~ 11:15	10′	▸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상황	국제외교팀장
11:15 ~ 11:25	10′	▸ HICO 증개축 현황	경주시
11:25 ~ 11:55	30′	▸ 업무 협의	참여기관 담당자
11:55 ~ 12:00	5′	▸ 마무리 말씀	국제관계대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4(목)】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작성자	소 장	지 상 철		
			팀 장	유동재	담 당	손준혁
		연락처	054-830-8822			

경북도, 제6회 관상어박람회에서 '은상' 수상

- 2021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관상어품평회 참가 -
- 50㎝급 '대정삼색비단잉어' 출품 -
- 토속관상어 15종, 생태수조 및 수중사진 특별전시관 운영 -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관상어품평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각시붕어, 납자루 등 토속관상어 15종과 수중사진 등 특별전시관을 운영해 지역 관상어 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상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이란 주제로 국내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59개사 162개의 관상어 수조 및 관련 물품 홍보부스가 운영됐고, 관상어 260여종이 출품 되는 등 관람객 8796명이 관람했다.

센터는 이번 박람회에 납자루, 각시붕어, 송사리, 돌고기 등 일반인에게 친근하고 멋스러운 토속관상어 15종을 선정해 수중사진과 함께 특별전시관을 운영했다.

특히, 대형 팔루다리움(1,200×900×300㎜) 수조는 우리나라 자연습지 생태계를 구현해 습지 동식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연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 팔루다리움 수조란 관찰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습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 물, 습지 등 완벽한 생태계를 구현한 수조

또한, 제6회 해양수산부장관배 한국관상어품평회에서는 2018년 자체 생산한 50㎝급의 비단잉어(대정삼색, 홍백)를 출품해 '은상'을 수상해 관상어 양식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장은 "세계 반려어 시장규모가 71조원, 국내 41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면서 "경북도는 센터 내 연구동 건립,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아쿠아 펫 등 관련 산업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4(목)】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레저관광과		
		작성자	과 장	도 경 식	
			팀 장	최병렬	주무관 정성욱
		연락처	054-880-7782		

경북도, 아름다운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특별한 동행

- 경북 江·山·海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포항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회의실에서 ‘경북 강·산·해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변화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마리나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업인과 어선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있는 어항을 중심으로 마리나항 개발 방향을 연구·조사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의 마리나항 개발 현황, 마리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또 시군의 마리나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고, 앞으로 경북의 마리나 산업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에는 마리나 계류시설이 현재 7개소 176선석이 있으며, 후포 마리나항만(307선석), 형산강 마리나(74선석) 등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557선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경북에 등록된 요트·보트가 1200여대가 넘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계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과 깊은 수심으로 공유수면 매립, 방파제 건설 등 대규모 마리나항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기존의 어항을 활용해 어촌과 해양레저관광이 공존하는 피셔리나항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북에는 어항을 활용한 마리나 계류시설이 6개소 121선석이 개발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으로 어촌의 마리나 시설을 활용해 요트체험, 요트스테이, 주변 숙박업소와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해양레저관광이 복합된 관광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마리나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면서, “어촌과 해양레저관광이 결합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강·산·해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 간 보 고 회 개 최 계 획

여가문화 확산으로 변화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 대응과 경북 동해안 소규모 마리나 개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개 요

○ 일 시 : '21. 10. 14(목) 15:00~16:30

○ 장 소 : 형산강 수상레저타운(3층 교육장)

○ 참석인원 : 20여명

- 도 : 해양수산국장,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수산과(어항담당) 등
- 시 군 : 연안·내륙 시·군 과장, 담당자 등
- 용역사 : (사)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주요내용

- 강·산·해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용역 중간보고 발표
- 시군별 소규모 마리나 개발현황 및 의견수렴 등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2 ~ 15:05	3′	▸ 인사 말씀	해양수산국장
15:05 ~ 15:35	30′	▸ 휴양형 마리나 용역 중간 보고	용역사
15:35 ~ 16:00	25′	▸ 시·군 소규모 마리나 개발 현황 및 계획	시군과장
16:00 ~ 16:25	25′	▸ 건의사항 및 종합토론	
16:25 ~ 16:30	5′	▸ 마무리 말씀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4(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작 성 자	과 장	김동희	
			사무관	김무현	주무관 박재희
		연 락 처	054-880-2928		

경북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 경북 7개 기관 시범사용기관 선정 6억7700만원 혁신제품 확보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조달청이 주관한 2021년 제2차 혁신 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에서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돼 6억 7700만원 혁신제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20년 실적 : 경상북도 외 5개 시군(영주, 영천, 김천, 예천, 울릉) 5억 6000만원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경북도, 문경, 김천, 구미, 영덕, 성주, 예천 등 7개 단체이다.

혁신기업은 ▷트렉스타(스파이크방한 부츠, 1억 7800만) ▷이노스피치(비대면 채용 솔루션, 4800만) ▷효돌(사용자 친화형 고령자 돌봄 시스템, 8800만) ▷에코셋(기계, 수로형자외선 소독설비, 1억 3900만) ▷쉘파스페이스(식물별 맞춤형 광원장치, 6600만) ▷삼진정밀(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1억 5800만) 등 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된 혁신제품을 구매해 제공하는 제품을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상용화 전 혁신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이관 받게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 7월 경북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혁신공공조달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지역 기업은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총17개 업체 1310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해 지역기업이 전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 선정 물품배부

조달청 혁신제품 공모사업 선정

○ 혁신제품 공모사업 개요

-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 →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공급
- 선정된 공공기관 → 제품의 장·단점, 개선사항 등을 업체에 제공
- 사업이 완료 → 시범사용 기관에 무상이관

○ **`21년 제2차 공모사업 선정결과** (7개기관 6.7억원)

- **경상북도**(회계과) **스파이크 방한 부츠 500컬레**(59백만원)
- 김천시 비대면 채용솔루션 (48백만원)
- 구미시 고령자 돌봄시스템 (88백만원)
- 문경시 스파이크 방한 부츠 1,000컬레(119백만원)
- 영덕군 수로형 자외선 소독설비 (139백만원)
- 성주군 식물별 맞춤형 광원장치 (66백만원)
- 예천군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158백만원)

공모사업 선정 물품 배부계획

○ **배부물품 : 방한부츠 500컬레**(시중가 119,000원/1컬레, 트렉스타)

○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배정물량 확정 ('21년 10월중)

- 안전,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 위주로 부서배정

○ 생산(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물품배부 ('21년 12월중 예정)

○ 제품사용 후 평가 의견을 생산업체에 제공 (품질개선)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4(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 성 자	과 장	강 은 희		
			사무관	우성룡	주무관	채희상
		연 락 처	054-880-3204			

칠곡할매들, 역사 속 한글 발자취를 찾아나서

- 제575돌 한글날 기념,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신바람 나들이 행사 가져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안동 · 영양 일원에서 칠곡할매 글씨체로 화제를 모았던 성인문해교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칠곡할매, 신바람 나들이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글 제575돌을 기념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한국전쟁,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등으로 정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해 생활 속 불편을 겪었던 지역 할머니들을 모셨다.

역사 속 여성들의 작품을 통해 애환과 아픔을 공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준 할머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

먼저, ‘여성들이 발전시켜온 한글의 발자취를 쫓는 여행길’ 이라는 주제로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음식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방문해 전통음식 맛보기를 체험했다.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마음을 담은 친필 한글 편지의 주인공

‘원이엄마’ 이야기와 관련된 월영교를 한복을 입고 산책하기, 사진촬영, 황포돛배를 타고 안동댐 주변도 둘러보았다.

칠곡할매들은 지난해 12월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유명세를 탔다.

이에 한컴오피스 정식 글꼴 탑재, 최근 국립한글박물관이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표구와 글꼴이 담긴 USB를 유물로 지정 영구보전하기로 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나들이에 참여한 할머니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한복 차림에 사진을 찍는 등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어르신들의 연세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준비했고, 이번 나들이를 계기로 관광과 한글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안동에서 발견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글씨체를 공인으로 개각하는 한편 경북형 한글 글꼴 개발, 관광 기념품, 간판 등 다양한 분야에 한글을 접목할 계획이다.

칠곡 할매들, 한글날 맞이 신바람 나들이 계획

'칠곡할매글씨체' 출시로 화제를 모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역사 속 한글의 발자취를 따라 신바람 나는 한글날 맞이 나들이를 추진

나들이 개요

○ 기　　간 : 2021. 10. 14. (목)

○ 방문지역 : 안동·영양 일원 한글 관련 명소

○ 참가대상 : 칠곡 성인문해반 어르신(5명) ※ 담당교사(5) 동반

○ 주요내용

-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음식 재현 체험
- 친필 한글편지를 남긴 원이엄마 이야기 관련 명소(월영교) 방문
  - 월영교 산책, 한복차림 사진촬영, 황포돛배 승선 등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20~11:00	·이동 (칠곡→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11:00~13:00	·교육원 탐방 및 점심식사	
13:00~14:00	·이동 (영양→안동 월영교)	
14:00~15:00	·한복 체험 및 황포돛배 타기	
15:00~16:00	·월영교 산책 및 기념촬영	
16:00~17:30	·이동 (안동→칠곡)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4(목)】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송 호 준	
			팀 장	변재엽	주무관 서윤봉
		연 락 처	054-880-2836		

경북도의회,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찬성 의결

- 14일 본회의에서 찬성36명, 반대22명, 기권1명으로 찬성의결 -
-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력 확보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길 열어 -
- 이철우 지사, 담화문 통해 도의회에 감사...정부에 통합신공항 추진 촉구 -

경북도의회는 14일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표결은 회장단의 합의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전날 열린 상임위(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을 심사결과로 제시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군위의 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전제로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정치권이 편입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추진돼 왔다.

* 공동합의문(2020. 7. 29. ~ 7. 30., 106명 동의서명)
  - 경상북도지사, 도 국회의원(13명 전원), 도의원(60명중 53명 동의, 6명 미서명, 1명 유보)
  - 대구시장, 시 국회의원(12명 전원), 시의원(30명중 26명 동의, 4명 미서명)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변경 시 도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325회 임시회(8월 20일~9월 2일)에 도의회의 의견을 구했다.

도의회는 9월 2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찬성취지의 수정안과 반대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의회의 의견

경북도에서는 9월 23일 도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 “원활한 입법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10월 7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다시 긴급안건으로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2020년 8월 18일 군의회 찬성의견을 첨부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시의회 찬성의결을 첨부해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도의회에서 명확한 찬성의결이 도출된 만큼 행안부에 도의회 의견을 보완하고 연내 법률안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을 거치게 되며 국회에서 법률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면,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가닥을 잡게 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공항은 15.3㎞ 규모로 건설되며, 공항 건설에만 10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관 항공산업, 공항관련산업, 여객물류, 문화관광컨벤션, 산업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찬성결정의 바탕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라면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중앙과 지역을 뛰어 다니던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이고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후손들에게 명품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달려가겠다” 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 줄 것” 과 “51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를 해 줄 것” 을 촉구했다.

붙임 : 경상북도지사 담화문

군위군 편입 관련 도의회 찬성의결에 대한 담화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찬성의결을 환영하며,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 발표 후, 2020년 8월 28일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이 최종 이전부지로 발표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지역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기간시설 이전부지 선정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항부지 선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약속은 도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드렸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서는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경북의 미래에 대한 오랜 고심 끝에 오늘 경상북도 의회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찬성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바탕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중앙과 지역을 뛰어 다니던 초심으로 돌아가 경북 개도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을 다

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후손들에게 명품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및 군위편입과 관련하여 보여준 대구·경북의 화합과 지역의 단결된 모습은 신공항 사업의 큰 추진력 확보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명확히 한 만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51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 10. 14.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4(목)】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작성자	기획관	최 혁 준	
			팀 장	최유복	주무관 김경재
		연 락 처	054-880-2138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 비전 :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발표 -

- 3대 전략 : 산업구조 대개조, 혁신인재1만명, 환태평양글로벌 허브 조성 -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장관, 균형위원장, 분권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성과보고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4개 권역에서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대구경북권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택이 아닌 운명, 하나의 행정·하나의 경제 대구경북통합’이란 주제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비전를 제시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3대 추진전략으로 ①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 구축 ②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③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첫 번째 전략인 산업구조 대개조를 위해 선택한 사업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로 5단계 전주기 로봇 지원 체계를 구축한 로봇산업으로 대구경북에 집적돼있는 연구기관과 기업을 통해 로봇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이다.

다음 사업으로는 전통적 주력산업인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을 미래형 자동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대구의 자율주행 플랫폼과 ICT융합기술 실증을 접목해 미래형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업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백신 거점화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 및 대구 첨복단지 중심의 임상·진단 SW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융합으로 바이오·메디컬 허브 육성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위한 인력양성으로 산·학·연·정 연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미래형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유출의 주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혁신인재 양성, 지역내 취·창업으로 해결하며 생활정주 지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을 통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2028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영일만신항의 항만물류를 더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해 신공항 중심의 SOC사업을 강화해 대구경북을 1시간 내 생활권·경제권 완성하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 소멸대안으로 대구경북에서 제안한 행정통합이 다른 권역에서도 확대돼 중앙정부의 관심사항이 됐다” 라며, “초광역협력은 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파이 확대이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3대 신성장산업을 대구경북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5(금)】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박 기 완	
			팀 장	홍경식	주무관 박정식
		연 락 처	054-880-3583		

경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펼친다

-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

- 경북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역에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과 환경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시설 관리자들께서는 자체점검으로 이번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